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의 봄.



지난해 창원 진해구 여좌천 벚꽃.

벚꽃의 계절 '활짝' 남녘은 축제 한마당



작년 부산 낙동강 30리 벚꽃.

- 창원 '진해군항제'**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여좌천 로망스다리 만개 앞뒤
- 부산 '낙동강정원 벚꽃축제'** 27일부터 내달 12일 삼락벚꽃길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 양산 '물금벚꽃축제'** 내달 4~5일 풍성한 볼거리 준비 황산공원 전기 카트 운행키로

경남 창원 진해와 부산, 양산 등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벚꽃이 잇따라 개화하며 본격적인 봄 축제 시즌이 시작됐다. 각 지자체는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일정을 조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상춘객 맞이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에 따르면 진해 일대 벚꽃이 24일 공식 개화하면서 벚꽃 명소인 여좌천 로망스다리 상류 방향에는 창원기상대가 개화와 만개 시기를 판단하는 세 그루의 관측목이 있다. 이 나무 중 한 가지에서 세 송이 이상의 꽃이 피면 개화로 판단하며 한 그루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면 '만개'로 본다.

통상 개화 이후 일주일 안팎이면 절정을 이루는 만큼 축제 기간에 맞춰 벚꽃이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진해군항제는 예년보다 화사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기후 변화로 인해 최근 몇 년간 개화 시기가 들쭉날쭉했던 점을 고려해 축제 시기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2024년에는 개막 초반 벚꽃이 충분히 피지 않아 일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올해는 개막을 앞두고 개화가 시작되면서 방문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봄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벚꽃 개화가 본격화되며 도심 곳곳이 연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다. 사상구는 벚꽃 개화가 예상되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낙동 제방 삼락벚꽃길 일대에서 '2026년 낙동강정원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설렘으로 물드는 삼락의

봄'을 주제로, 삼락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행사는 벚꽃이 평년보다 이르게 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작 시점을 앞당기고 기간도 확대됐다.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벚꽃 음악회와 버스킹, 거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되며, 이후에도 피크닉 등 상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야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더욱더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바가지요금과 위생안전 문제에 대비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고 선정된 푸드트럭만 영업할 수 있는 푸드존도 축제 기간 운영된다.

양산에서도 벚꽃을 주제로 한 봄 축제가 이어진다. 양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5일까지 황산공원 문주광장과 중부광장 일대

역압과 신화 사이... 나현이 불러낸 존재들

1980년 5월18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같은 날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막기 위해 나선 계엄군은 발포까지 하면서 폭력적인 진압과 학살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으며, 이 중에는 연고 없는 이들, 이른바 '부랑자'들도 포함됐다.

헬렌스 화산에서는 폭발 이후 전설 속에서 존재하던 설상 거인 '빅풋'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나현(사진) 작가는 같은 날 벌어진 이 두 사건을 연결해 '빅풋을 찾아서'를 만들었다. 가로 560cm 세로 640cm 높이 390cm 크기의 대형 작품이다.

거인이 팔이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머리는 바닥에 박고 있는 모습이다. 신화적

있던 것들을 찾아내고 탐구하는 작가 나현의 개인전 '아무것도 아닐 거야'가 서울 연희동 초이앤초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가 지속해서 전개해 온 '역사 해석'의 궤적을 따라가며 현실과 신화가 만나는 지점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전시됐다.

'월넛 바벨 타워, 2013'은 작가의 바벨탑 프로젝트 중 하나다. 목재 구조물에는 독일 베를린 악마의 산과 서울 난지도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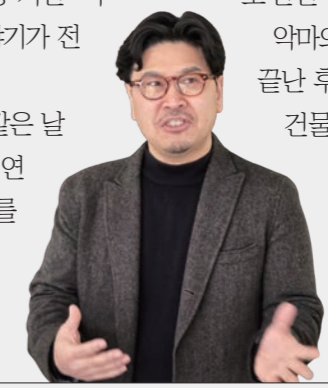
악마의 산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베를린 시내에서 나온 건물 잔해와 전설 폐기물로 만들어진 인공 언덕이다.

난지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서울에서 1978년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돼 15년 간 각종 산업폐기물과 건설 폐자재, 생활 쓰레기 등이 매립된 곳이다.

작가는 "바벨탑이나 악마의 산, 난지도 모두 전체주의의 결과로 생성된 인공물"이라며 "역설적으로 이곳에서부터 다양성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는 대만 원주민 이야기를 담은 '포모사 프로젝트'와 쿠바에 정착한 한국 이주민 역사를 담은 '나현 보고서-민족에 관하여' 등도 볼 수 있다.

전시는 4월 19일까지 진행된다.



나현 '아무것도 아닐 거야'展 1980년 5월18일 벌어진 두 비극 하나의 서사로 엮은 설치미술

에서 '2026 물금벚꽃축제'를 개최한다. '물금, 벚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벚꽃 터널과 테마존, 어린이합창단 및 지역 예술인 공연, 가족 뮤지컬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인다.

개막일은 다음 달 4일 공연에는 김용반·양지원·유민지·별사람이, 5일에는 황기람·최전설·하하&스킬 등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해 황산공원 중부광장과 문주마당(메인 무대)을 오가는 '벚꽃타요(전기 카트)'를 운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1일 낮 12시부터 6일 오후 9시까지 낙동로 약 1km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축제 기간인 4일과 5일에는 문주광장 메인 무대 앞 도로도 추가로 통제된다.

시 관계자는 "완연한 봄과 함께 물금 벚꽃이 꽃망울을 키우고 있다"며 "물금벚꽃 축제에서 양산의 봄을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남권 주요 도시들이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올봄에는 한층 다채롭고 풍성한 꽃놀이와 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연희동 초이앤초이 갤러리에 전시된 나현 작 '포모사 프로젝트', 연합뉴스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治人 治世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